

Japan Weekly Digest

2010. 2. 1 ~ 2. 7

□ 금주의 이슈

- 도요타, 「글로벌품질특별위원회」 설치 등 대응책 발표
-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 발표
-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발표

□ 일본 정재계 소식

- 요네쿠라 차기 경단련 회장 선임과정 보도
- 정부, 납세자번호제도 도입 검토
- 도요타 프리우스 브레이크 조사 지시

□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

-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 로드맵 작성 지시
- 중소기업현장 제정을 위한 연구회 발족
- 경산성, 아프리카에 우주사업미션단 파견
- 경산성, 에코카 수입 43개 차종 추가 지정

□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

- ‘도요타 NO1, 유지할 수 있을까?’
주간동양경제 특집 (2010.2.6)

□ 파트너를 찾습니다

- [한국의 미술품과 전통공예품] 톱아트
- [(자동차용)사출성형금형] 미시마코산
- [바이오 관련 벤처기업]
- [주파수변환장치용변압기] 키타시바전기(주)
- [폴리카보네이트 파이프] 싱크로테크



협회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3-9888)

□ 금주의 이슈

○ 도요타, 리콜문제 대응책 발표

- 도요타 자동차는 「글로벌품질특별위원회」 설치 등 미국에서 엑셀페달에 불량 가능성이 있는 8개 차종 약 240만대에 대해, 포괄적 대응책을 발표
- 작동이 안 될 우려가 있는 엑셀페달의 수리부품 발송을 시작했고 일부 딜러는 24시간 서비스 대응 체제로 전환
- 미국자동차 조사회사에서 1월의 판매대수가 12%나 감소하고, 시장점유율은 작년대비 3.2% 감소한 14.7%로 발표

○ 고속도로 일부 구간 6월부터 통행료 면제

- 국토교통상은 2일, “오키나와현과 홋카이도 등 교통량이 적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6월부터 37개 노선, 50개 구간에 대해 시범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발표
- 무료화 되는 고속도로의 총연장은 전국 고속도로(약 8,500km)의 18%인 1,626km에 달함
-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의 고속도로와 도메이 고속도로, 한신 고속도로 등은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

○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발표

- 日정부는 2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1990년 대비)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
-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삭감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30배 이상인 1천만 가구가 태양열발전을 설치해야하고, 하이브리드차의 비율이 전체의 60%에 달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
- 환경성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작성, 온실가스문제에 대한 각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예정

〈일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가정부분	운송부분	산업·사무실 등 업무부문
▶ 고효율급탕기 80%이상 도입	▶ 신차판매 중	▶ 조강생산:
▶ 건축물 고효율 단열재 보급	- 하이브리드비율 60~85%	차세대 코크스로 보급률 50%
▶ 태양광 주택 1000만 가구	- 전기자동차비율 5~15%	▶ 태양광 발전공장과 사무실 등
▶ 에너지절약형 가전 보급	▶ 승용차등 연비20~40% 향상	총 4300만Kw 도입

□ 일본 정재계 소식

○ 차기 경단련 회장 선임 : 두 개의 관례를 깬 것으로 막판까지 난산

- 일본경제신문은 2일, 차기 경단련회장으로 내정된 요네쿠라 스미토모 화학 회장 선임에 대해 경단련의 인사 관례를 깬 것이었다고 보도
- 첫째, 15명으로 구성된 부회장단이 아닌 부회장OB에서 선임한 것
- 둘째, 전례가 없는 舊재벌계에서 등용한 것
- * 선임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관례를 깨기 싫어했던 미타라이 현회장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미타라이 회장은 막판까지 부회장단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도

○ 재무성, 납세자번호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회 설치

- 세제조사회(회장 : 간 재무상)는 『납세자번호제도』 도입을 위해, 각료가 참가하는 검토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발표
- 간 재무상은 내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싶다고 언급하고, 이 법안의 실현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
- 추진방안으로 ① 새로운 번호 창설, ② 기존 연금번호 이용, ③ 주민기본대장의 활용 등 3개방안에 대해 검토

○ 국토교통성, 도요타에 프리우스 브레이크 조사 지시

- 일본에서 판매되는 ‘프리우스’의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작년12월 이후 14건이나 접수, 국토교통성에서 도요타에 조사를 지시
- 美,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프리우스의 제동장치 이상에 관한 신고가 102건 접수, 이 가운데 추돌 등의 사고는 4건, 특히 2건에서 부상자가 나왔다고 발표
- 국토교통성은 도요타에 관련 조사를 지시했으며, 도요타측은 소비자 불만이 쌓이자 사실 관계를 확인 중(국내에서 77건 소비자 신고)
- 신형 프리우스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결함이 확인될 경우 도요타가 받는 타격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

□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

○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 로드맵 작성 지시

- 나오히마 경산성과 센고쿠 국가전략상은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 동아시아공동체구상과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각 국가수상들과 논의
- 나오히마 경산상은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구축을 위해 로드맵을 작성하겠다고 강조
- 태국 총리, 베트남 총리, 호주 무역상들이 참가하여 일본의 구상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합의

○ 경산성, 중소기업현장에 관한 연구회 발족

- 경산성은 3일, 차세대 인재육성, 공정한 시장정비,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등에 관한 중소기업현장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회를 개최
- 3일 첫 회의에서 나오히마 경산상은 일본산업 구조의 전환기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행동방침을 작성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연구회는 중소기업 경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5월까지 현장 제정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 경산성, 아프리카에 우주사업미션단 파견

- 경산성은 2월, 7~12일까지, 우주산업 관민방문단을 구상하고 아프리카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발표
- 아프리카 방문단은 현지에서 정부 관료나 기업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일본의 우주산업기술과 사업에 관한 영업을 하는 것이 목적
- 미션단은 경산성, 우주개발관련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IHI, 그리고 소형 위성 설계·제조 벤처기업 '악셀 스페이스' 등 15명으로 구성

○ 경산성, 에코카 43개 차종 추가 지정

- 경산성은 3일, 에코카 구입을 위한 보조금제도의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수입차 43개 차종을 보조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
- 43개 차종 중 35개 차종은 유럽차, 8개 차종은 미국차

□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

‘도요타는 NO1을 유지할 수 있을까?’ 주간동양경제 (2010.2.6일자)

~ 도쿄대 세노오 교수와 히토츠바시대 노베오카 교수 대담 ~

○ 일본자동차 산업의 미래

- 일본자동차 회사의 수명은 10년 정도밖에 없을 것임
 - * 도요타, 혼다도 자동차 업계의 리더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일본자동차의 경쟁력을 보장할 수 없는 이유

- 수직통합형 사업구조의 붕괴
 - * 전기자동차 시대가 오면 자동차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수직통합형 사업구조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음
 - * 일본자동차 회사는 3만개나 되는 부품을 정확히 조립하는 미세조정 기술에 강함. 하지만 전기자동차는 그런 미세조정 기술은 필요 없음
- 자동차 부품의 모듈화
 - * 전기자동차는 디지털제품과 같이 부품공통화로 모듈형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품을 조립만 하면 완성되는 제품이 됨

○ 일본기업의 과제

- 국제표준화
 - * 중요한 것은 모터와 전지, 전지와 부품을 연결시키는 인터페이스의 설계
 - * 인텔처럼 부품내부를 경쟁사가 모방할 수 없는 독자기술을 도입하여, 그 기술을 표준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
- 모터나 전지의 중간부재화
 - * 인텔이 MPU를 이용한 마더보드를 개발한 것처럼, 모터나 전지를 어떻게 중간부재화할 수 있을지가 과제
- 사회 인프라 구축
 - * 전기자동차는 정보네트워크와 에너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사회인프라가 중요
 - 이런 주장에 대해 노베오카 교수는 자동차는 ‘의미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로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아무리 기능적으로는 일본기업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도 의미적 가치가 있는 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일본관련 주요 보고서】

- 『도요타를 위협하는 안정성 위기』 Financial Times, 2월 1일
 - 안전성·품질의 대명사이었던 도요타가 대규모 리콜 실시. 적어도 이번 사건으로 주당 200~300억엔의 이익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음.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품질관리, 글로벌생산 등 전략을 다시 재고할 필요성이 있음
- 『아시아 신흥국시장 진출의 열쇠를 쥐는 BOP비즈니스』 제일생명경제연구소, 2월 2일
 - BOP(연간 소득3000불미만)시장규모는 약 40억명. 이 시장비즈니스는 저가격상품의 양산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현지의 고용소득개선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음. 일본기업은 장래 매력적인 시장이 되는 BOP시장을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함
- 『아시아는 내수 주도 경제에 전환했는가』 다이와종합연구소, 2월 1일
 -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각국들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수출비중이 줄어들고 내수주도로 전환한 국가가 증가. 09년은 아시아가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금주의 일정】

2010. 2월	주 요 일 정
2월 1일(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멕시코 정상회담 (도쿄) ◦ 이나모리 교세라회장 JAL회장 취임기자회견 ◦ 1월 신차판매대수 발표
2월 2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Monetary base발표(일본은행)
2월 3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은행장 기자회견 ◦ 결산(4~12월) : 혼다, 덴소, 미츠비시자동차, 야마하 등
2월 4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가사키 지사 선거 통지 ◦ 간사이 재계세미나(교토, 5일까지) ◦ 1월 자동차회사별 판매실적 발표
2월 5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재무상·중앙은행총재회의 개최(캐나다) ◦ 12월 경기동행지수 발표 (내각부) ◦ 결산(4~12월): 파나소닉, 가시오 등

□ 파트너를 찾습니다

1. [한국의 미술품과 전통공예품]을 수입하고 싶다고 의뢰해 왔습니다.

☞ 의뢰기업명 : 톱아트(일본의 미술품, 공예품 통신판매사)

2. [(자동차용)사출성형금형]을 수탁생산해줄 한국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 의뢰기업명 : 일본 기타큐슈시 소재 '미시마코산'

☞ 한국기업의 조건 : 현대, 기아 등 주요 자동차 메이커와의 거래관계에 있을 것

3. 일본의 투자전문기관에서 투자대상이 되는 한국내 [바이오 관련 벤처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4. 한국기업에서 [주파수변환장치용변압기]를 조달 받고 싶다는 일본기업의 의뢰가 있었습니다.

☞ 의뢰기업명 : 北芝電気株式会社(기타시바전기주식회사)

☞ 의뢰안건 : 주파수변환장치용변압기 메이커로부터의 견적제공 희망

• 희망가격 450만엔이하/대

• 지불조건 T/T • 운송조건 FOB

(우선, 상기조건대로의 견적을 제공받길 원합니다.)

☞ 한국기업에의 확인내용

• lead time • 기업정보

5. 한국으로부터 [폴리카보네이트 파이프]를 조달하고자 한다는 의뢰가 있습니다.

☞ 구입회사 : 싱크로테크

☞ 상품명 : 폴리카보네이트 파이프(φ16、L = 802) 압출품 두께 1mm

(제1희망) 테이진 판라이트 광확산 그레이드 ML2205상당품

(제2희망) 테이진 판라이트 표준품 1102, 1103, 1105

*테이진 상당품 이외의 것도 可

☞ 용도 : 조명기구

☞ 수량 : 총 4회(1회차 1,500개, 2회차 5,000개, 3회차 10,000개, 4회차 15,000개)

*주문회차별 견적 희망

☞ 도착지 : 일본 요코하마 항

* 관심있으신 회원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비즈니스협력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담당 : 전재용 선임연구원 / Tel : 02-3014-9845 / jyjun@kjc.or.kr)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

2010년 4월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



한일 양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단체의 최고경영자 300여명이 매년 4월 정례적으로 만나 양국 기업인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한일 간의 경제현안 사항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통해 양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는 한일경제인회의가 오는 2010년 4월 14일(수)~17일(토) 까지 일본 오카야마(岡山)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969년 이래 제4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은 2월 초에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일정 수립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관심 있는 회원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 회의개최(안)

- 개최기간 : 2010년 4월 14일(수) ~ 17일(토)
- 개최장소 : 일본 오카야마시(호텔 그란비아 오카야마)
- 규 모 : 한일 양국 기업(단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300여명

| 한국측 : 약 150여명 |

- 단장 : 한일경제협회 조석래 회장 (효성·전경련 회장)
- 단원 : 경제5단체장 및 삼성, 현대 등 주요기업 대표, 관련단체 등

| 일본측 : 약 150여명 |

- 단장 : 일한경제협회 飯島英胤(IJIMA Hidetane) 회장 (도레이 특별고문)
- 단원 : 경단련 회장 등 주요경제단체장, 미츠비시, 도시바 등 주요기업 등

- 주최기관 : (사)한일경제협회, (사)일한경제협회

■ 기타

한일경제협력에 대한 논의희망 테마 등이 있으시면 수시로 우리협회에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문은 2월 초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 : 조덕묘 부장 TEL : 3014-9855 / E-mail : chodm@kje.or.kr

